

PC비전으로 히트 「CD시네마」 곧 市販

두인전자

컴퓨터로 TV시청 개설

멀티미디어란 용어가 국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수년전.

그래서 멀티미디어하면 웬지 신세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컴퓨터와 친숙한 이들 세대 사이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발견이 탄생되고 있다. 늘 컴퓨터와 생활을 해야 하는 이들이기에 컴퓨터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컴퓨터로 TV를 시청할 순 없을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이 「PC비전」이란 제품을 국내시장에 최초로 선보이게 했다.

30대 5~6명이 손잡고

「PC비전」이란 PC에서 TV를 수신하여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두인(斗仁)맨들이 바로 이 개발의 주인공이다. 30대 초반의 젊은 층으로 구성된 이들은 멀티미디어 사업으로 행운을 잡았지만 처음부터 멀티미디어가 그들의 사업대상은 아니었으나 세계적 추세가 멀티미디어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주목하여 최종 목표를 멀티미디어로 잡은 것이다.

이들이 92년 「PC비전」을 개발할 당시만해도 멀티미디어라고 하면 컴퓨터에 음성(sound)이 첨가된 정도로만 인식할 뿐 개념조차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두인전자가 개발한 「PC비전」은 비디오라는 새로운 개념의 멀티미디어를 선보인 셈이다.

기성세대들이 생각할 때 미숙하게만 보이는 이들이 斗仁(대표 : 김광수·34)이란 전자회사를 설립한 배경을 보면 기성세대들이 우려하는 젊은 패기만을 앞세운 기업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김광수사장을 비롯 5~6명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우리는 평소 우리나라 대기업의 운영방식과 업계관행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많은 회의를 느낀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 차세대 모범적인 기업을 한번 이룩해 보고자 하는 '어린 시절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라고 우수근소장(두인정보통신연구소)은 창업동기를 설명했다.

이들은 비교적 안정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정당하게 이윤을 추구하여 차세대 거대기업이 될 두인전자를 확신하며 신세대들에게 그들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건강한 기업정신으로 무장된 두



◇ '인간의 어짐'을 최고로 여긴다는 두인정보통신연구소의 우수근소장

인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두인전자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회사설립과 함께 탄생한 두인의 브레인이라 할 수 있는 두인정보통신연구소를 들 수 있다. 통신시스템연구실, 시스템S/W연구실, 뉴미디어개발실 등 3실(室)체제로 이루어진 정보통신연구소는 두인의 로고가 의미하는 '미래를 향한 창'처럼 정지해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늘 새롭게 샘솟는 아이디어의 보고다.

이곳에서 처음 탄생된 것이 「PC비전」으로, 이것이 컴퓨터 애호가들에게 첫 히트를 쳤을 당시 그들은 세상을 모두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그후 생산한 제품부터는 건본품부터 많은 제동이 걸려 사업의 어려움을 새삼 실감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겸손의 미덕을 깨달은 두인맨들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더욱 더 개발에 박차를 가해 제법 굵직 굵직한 신제품을 출시했고 멀티미디어분야에선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두인만의 입지를 확고히 이루어 놓았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CD시네마」는 시판되기도 전에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데, 이 제품은 TV수신카드나 멀티비전 등이 꼭 있어야 컴퓨터 화면으로 영상을 볼 수 있었던 기존 제품과는 달리, "보드 한장과 CD롬 드라이브만 있으면 완벽한 비디오CD나 CDI-FMV 플레이어가 되고 다양한 CD롬 인터페이스 내장이 가능하다"고 CD시네마 개발팀 팀장이었던 유수근소장은 설명한다.

「윈도우 비전」도 개발

이외에도 두인전자는 「윈도우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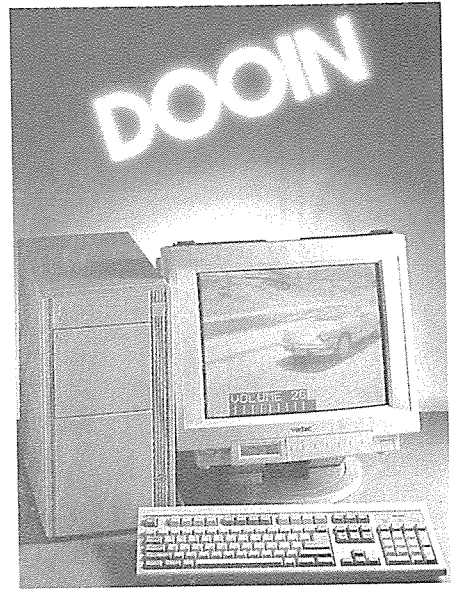
이라는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를 내놓고 저장, 재생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번들로 제공해 영상카드분야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단단히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 우리나라 멀티미디어 저변기술의 확보가 너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유수근소장은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적 조류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WTO 개막을 앞두고 고유 기술을 확보하는 그 자체보다는 얼마만큼 개발기술이 효과적이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반기술정책사업이란 명목으로 관(官)에서 지정해주는 핵심기술을 무조건 개발해야 한다는 사고는 이제 너무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좀더 탄성력을 갖춘 기술관이 필요한 때라고 신세대다운 그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차세대 모범기업 다져

그렇다면 두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윤추구'인가 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 멀티미디어는 빠져서는 안될 매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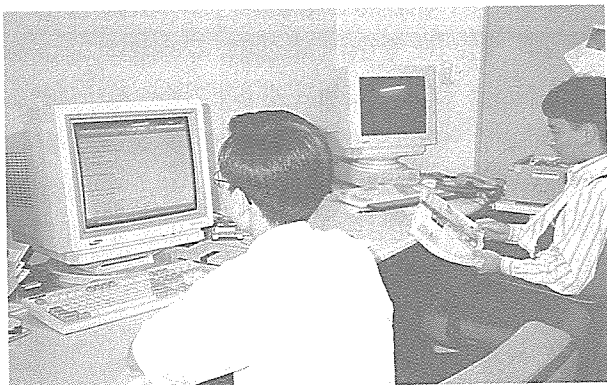


◇PC에 다양한 TV기능을 갖춘 PC비전플러스

이런 첨단기술개발에 앞서 이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사원들의 인성(人性)문제이다. '두인'이라는 상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인'은 '인간의 어짐'을 최고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문화와 더불어 친숙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어짐'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X세대 기업이다. 그래서인지 두인전자의 김광수사장은 "우리들의 웅색한 기술개발에 대해 이처럼 관심을 가져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아직 무엇하나 해놓은 것도 없는 시작단계에 불과한데 무슨 '기술개발성공사례 인터뷰'냐며 인터뷰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김광수사장은 중소기업으로서 단순히 두인전자가 아닌 여러 회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대성해서 그들의 모범적 기업상을 국내에 파급시키는 것이 그의 꿈이라고 유수근소장은 대변했다. 하정실(객원기자)



◇아이디어의 모범기업 두인청문회
특정현황의 연구실